

삼풍백화점 붕괴·박근혜 탄핵...속보·이슈로 본 역사적 '사건사'



박근혜 파면...국민의 승리

헌재 8:0 만장일치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해 관한 남용 -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선거 5월 9일 유력... 각 당 대선제제 전환

2018년 5월 9일 유력... 각 당 대선제제 전환... 헌재 8:0 만장일치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

정운현 지음

안중근·나석주·윤봉길 의사의 의거, 4·19혁명, 6·29선언,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페리호 침몰 등...



위에 열거된 내용은 우리 현대사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각각의 소식은 기쁨과 애환, 전율과 슬픔, 더러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실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속도'다.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도처에 있는 이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꽃에도 무게가 있다

김금희 지음

"지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한다. 다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아픈 꽃들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안고 있는 꽃들을 생각했다."



여수 출신 김금희 시인이 시산맥 제19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으로 '꽃에도 무게가 있다'를 펴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작품집에는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 '절벽, 구절초가 다짐하다', '오래오래 꽃처럼', '벚꽃 필 때와 벚꽃 질 때', '꽃에도 무게가 있다', '매화말발도리 꽃', '명자꽃' 등 시인의 섬세한 감수성이 빛나는 작품은 서정적이고 깊은 울림을 준다.

"이 가슴 뛰며 지나간다/ 이슬에 젖어 흘날린다// 자동차는 꽃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다/ 달리는 거리만큼 꽃은 내 맘에 쌓이고// 이불처럼 덮인 병상의 꽃이 무거워/ 나는 그만 꽃 무덤에 잠기고 만다// 꿈결처럼 오피리아를 찾다/ 잠잠히 황홀경에 빠져 들어 버린다"('꽃에도 무게가 있다' 중)

표제시 '꽃에도 무게가 있다'는 짧은 날 보았던 꽃거리를 오늘의 풍경과 겹쳐 떠오르는 단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자동차 바퀴에 짓겨지는 꽃잎을 시인은 '이불처럼 덮인 병상의 꽃'으로 표현한다. 지나온 시간이 "그만 꽃 무덤에 잠기고" 마는 순간으로 치환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꽃)일수록 그에 못지않은 무게가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는 그렇게 모든 이의 인생은 한송이 꽃과 같다는 진실을 아프게 노래하는 듯 하다.

<시산맥 9000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100년

법륜·오연호 지음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 이 문제는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되짚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듯 합니다."



"그 하나가 자기주도성이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분단의 과정에서 우리를 마음속에 적대 감정이 많이 생기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통일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죽목죽살'을 통한 대중들의 인생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과 오연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심층 대담으로 화제를 모았던 '새로운 100년'이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다시 오연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시원한 답을 준다.

책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고차방정식과 국제정세의 달라진 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민들의 뜻이 담긴 촛불혁명으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경쟁 구도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이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온 법륜 스님은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책을 통해 붕괴돼 가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까지 냉철하게 평가한다. 미중 패권경쟁과 신질서 구축, 그 속에서 요동치는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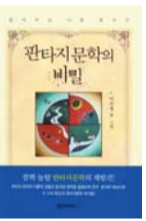
<오마이북 1만6800월>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판타지 문학의 비밀

이수경 지음

'판타지문학 여행을 떠나자.' 판타지는 18세기 말, 낭만주의가 등장한 이후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판타지문학 전문가인 이수경 건국대학교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가 '판타지 문학의 비밀'을 펴냈다. 이 책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론부터 작품 해설, 그림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한 판타지문학의 이론편이다. 난해하고 복잡한 판타지 문학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이 책은 24편의 작품을 비슷한 주제와 유형으로 분류했다.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등 책에 실린 24편의 작품들은 스토리 자체가 지니는 힘만으로도 충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내재된 의미는 시대를 뛰어 넘는 보편적 가치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 책에는 판타지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판타지의 유래, 그리고 발달과정도 잘 요약돼 있다. 판타지는 오래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 전설, 민담에 포함돼 있었다. 지금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판타지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세밀하게 풀어내며 판타지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유명한 판타지 작품들을 하위 장르 별로 분류하고 판타지 문학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폭 넓은 이해를 돕는다.

책의 대부분은 판타지 작품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먼저 작품 개요를 설명한 뒤, 작품 속 주요장면과 작가를 소개한다. 작품 '포인트' 부분에서는 창작 배경과 핵심 주제에 대해 다룬 후 마지막으로 전체 줄거리를 소개한다. 지은이는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는 주제 의식이 독자들의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섬세하게 짚어 내며 매력적인 판타지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중앙미디어북스 2만3000월>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